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9

신성한 흐름이라는 유일한 흐름 안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른 신성한 위임

성경: 행 26:18, 시 46:4상, 계 22:1, 고전 16:10

- I. 성경에서 신성한 흐름, 곧 유일한 흐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 창 2:10-14, 시 46:4상, 요 7:37-39, 계 22:1.
- A. 성경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생명의 샘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이신 그 영을 계시해 준다 — 렘 2:13, 시 36:9상, 요 4:14, 7:37-39.
  - B. 흐름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다 — 계 22:1.
  - C. 성경에는 오직 한 흐름, 한 신성한 흐름만 있다(창 2:10-14, 계 22:1). 오직 한 신성한 흐름만 있으며, 이 흐름은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 D. 신성한 흐름, 곧 유일한 흐름은 주님의 일의 흐름이다 — 고전 16:10.
    - 1. 우리가 일의 흐름, 곧 조류라고 부를 수 있는 한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 2. 사도행전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오직 한 흐름이 있으며, 우리가 이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 비교 행 15:35-41.
    - 3. 오순절날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단 하나의 흐름이다.
    - 4. 교회 역사는 역대로 그 영의 한 흐름만이 항상 흘러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해 왔지만, 모두가 이 한 흐름 안에 있지는 않았다.
- II.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주님의 일의 흐름 안으로 인도하셨으며, 그가 주님을 본 일들과 장차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일들 모두에 대해 그를 사역자와 증인이 되게 하셨다 — 행 26:16, 비교 1:8, 23:11, 20:20, 31.
- A. 바울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담고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인 사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 — 행 26:19, 9:4-5, 15, 롬 9:21, 23, 고후 4:6-7, 골 2:2, 엡 3:4, 5:32.
  - B.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상을 보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자신께로 전환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상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살고 수고하는 동안에 우리의 부담이 될 것이다 — 갈 1:15-16, 롬 15:16, 고전 15:10.

Ⅲ.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증가와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이 절은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위임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내용을 밝혀 준다.

- A.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따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희년, 즉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해를 성취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 B.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위임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체험과 실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러한 체험과 실재 안으로 이끌 수 있다 — 엡 3:8.

1.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 a.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에 대하여 더욱더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 — 엡 1:17, 3:5, 비교 계 4:6, 3:17, 마 6:6.
- b. 우리는 주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이상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 행 26:16, 빌 3:8하, 10상, 13, 비교 신 4:25.
- c. 사역자와 증인이 되는 것은 가르침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타남과 이상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본 일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일들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 행 22:14-15.
- d. 우리의 위임은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다 — 엡 3:9.

2. “어둠에서 빛으로 ... 돌아가게 하고”.

- a.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 사 2:5, 요일 1:5.
- b. 우리는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눅 11:34-36.
- c.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 골 1:12, 요 8:12, 1:4, 시 119:105, 130, 마 5:14, 계 1:20.
- d. 우리는 세상에서 발광체들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 빌 2:14-16.
- e.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 — 벧전 2:9.

3.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 a. 우리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은 맑은 하늘과 함께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이다 — 겔 1:22, 26.
- (1) 맑은 하늘 위의 보좌를 갖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으뜸이 되시도록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고 가장 탁월한 위치를 가지시도록 하는 것이다 — 골 1:18, 비교 겔 14:3.
- (2) 우리의 하늘이 맑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보좌, 곧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된다 — 행 24:16.
- (3)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좌를 가지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를 가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롬 5:17.
- (4) 우리가 위에 보좌가 있는 맑은 하늘 아래 있다면, 진정한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이끌 것이다 — 고후 10:4-5, 8, 13:3, 10.
- b. 주님께 대한 우리의 최고도의 사랑이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장비시킨다 — 비교 요 21:15, 17.

4.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 a.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철저히 용서받도록 주님께 가야 한다 — 요일 1:7, 9.
  - b.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죄과들을 지워 주시고, 그의 죄악을 철저히 씻으시며, 그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그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 시 51:1-2, 7, 9.
    - (1) 우슬초는 겸손하고 낮추어진 인간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왕상 4:33상, 출 12:22상)를 예표하며, 우리의 중보자와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함축한다(히 8:6, 9:15, 10:9).
    - (2)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철저히 진정한 회개와 자백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
    - (3)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질 것이고 자원하는 영으로 복돋아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칠 수 있고, 죄인들이 그분께로 돌아올 것이다 — 시 51:12-13.
5. “나를 믿음으로써 ...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a. 이 유업은 삼일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실 모든 것이다.
  - b.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었고, 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다 — 골 2:9, 1:12.
  - c.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즉 교회생활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의 보증(엡 1:14)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 비교 딤후 2:22.
  - d.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생활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로 이끌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자신의 영을 훈련하여 기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 히 2:10-11, 고전 1:9, 고후 4:13.

**IV.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 있고자 한다면, 다락방의 헌신을 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 행 1:13-14.**

- A.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의 직업을 버렸지만, 다락방에서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버렸다 — 마 4:18-20, 행 1:13-14.
  - 1. 그는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함께 서 있으면서 그의 조상들의 종교를 버렸다.
  - 2. 그는 그의 조국, 그의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그의 친척들을 버렸으며, 기꺼이 그의 목숨을 희생하고자 했다.
- B.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은 다락방의 헌신이다. 이러한 헌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늘에 속한 이상과 ‘결혼하도록’ 대가를 지불한다 — 행 26:19, 1:8, 20:24.
- C.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 뒤에 있는 다리들을 불태울’ 것이고 되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다.
- D.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안약이신 기름 바르시는 영을 사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계 3:18.
- E.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는 것은 값싼 일이 아니다. 이 길은 값비싸며, 큰 희생이 따르는 헌신을 요구한다.
- F. 우리는 여기에 어떤 운동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을 위해 있다. 회복은 다락방에

서의 분명하고도 비범한 헌신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 G. 다락방에 있던 백이십 명 모두는 하나의 번제물이 되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영 안에서 불타고 있었으며, 신성한 생명의 신성한 불로 다른 사람들을 불태웠다 — 눅 12:49-50, 행 2:3-4, 롬 12:11.
- H.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지만, 그들은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주님께 어떤 것도 드리지 않았다. 주님의 움직임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곧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과 함께하였다 — 행 17:6하.
- I.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전환할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다. 우리가 다락방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명확하게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의 증거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다락방에 있겠습니다.”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른 완전한 복음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이상(異象)을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상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바울은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라고 말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의 배경에는 유대 종교가 있었다.

###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

이 배경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계시된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었다. 주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곧 이교도의 세계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성경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신성한 규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백성에게 오셨다. 이 백성은 매우 성경적이었다. 주 예수님을 첫 번째로 따른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방인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배경을 가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중의 몇 명을 부르셨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어느 날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역’(마 16:13)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곳은 성전과 거룩한 성에서 멀리 떨어진 거룩한 땅의 변두리에 해당되는 곳이었다. 그분은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신 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마 16:13) 제자들이 몇 가지 답변을 한 후에, 주님은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마 16:15)라고 물으셨다. 왜 주님은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역’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사실은 그분이 전통적인 종교와는 절대적으로 다르시다는 것을 강하게 함축한다. 주 예수님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은 종교의 일부가 아니시다. 그분은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르시며 종교 밖에 계신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유대 종교의 영역이나 범위 안에서 주어지지 않았다. 주님은 제자들을 ‘거룩한’ 모든 것—거룩한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에서 이끌어 내셨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모두 버릴 것입니다. 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의 배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 이것은 가르침이나 전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은 계시였다. 이것은 유대 종교나 거룩한 성전이나 거룩한 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종교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마 16:18)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교회를 본다. 이처럼 이 장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놀랍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반드시 교회를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다만 반석이시고 교회는 건축물이다.

18절은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19절에서 주님은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인 음부의 문들을 보고, 긍정적인 면인 천국을 본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며, 음부의 문들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패배시킬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사탄의 왕국을 패배시킨다는 이상은 종교의 테두리 밖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문화나 윤리나 도덕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천국을 가져오고 음부의 문들을 굴복시키는 교회에 관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한다.

### 주님의 나타나심이 사울을 증인으로 만들

사도행전 26장은 유대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7절에서 주님은 이 백성에게서 사울을 구원하여 그들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절에서 ‘이 백성’이라는 말은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유대 종교 안에는 의지가 굳건하고 전통적인 종교에 대하여 신실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자기 조상의 종교와 전통에 대하여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가 힘을 다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해를 입히기 위해 길을 가는 도중에,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땅에 엎어지게 하셨다. 그때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물었고,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행 26:15)라고 대답하셨다. 여기의 배경은 이교도의 배경이 아니라 전형적인 종교의 배경이다. 사울은 전통적인 종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열성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열성적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 노선에서 가장 벗어난 사람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사울이 엎어진 후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행 26:16) 종종 주님은 우리를 엎어지게 하신 후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거기에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면, 나는 너를 종교인이 아닌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를 내가 본 것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는 하늘로부터 내게 말하는 나를 보았다. 이제 가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증언하라. 전에 너는 나를 가리켜 죽고 장사 지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너는 내가 부활하여 지금 하늘에 살고 있음을 증언해야 한다.”

16절에서 주님은 사울에게 그가 주님을 본 것과 장차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실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가르침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의 방식으로 사울에게 다른 것들을 계시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백성에게 증언해야 했다. 이것은 가르침이나 교리나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계시이다. 후에 사도 바울이 공급한 것은 모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주님께 어떤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에서 비롯된 계시를 받은 것이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이러한 체험을 한 후에, 사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살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것이다. 내가 본 것은 이 살아 계신 주님의 나타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분은 내게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심지어 내게 거듭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나는 무언가를 본다. 그런 후 나는 가서 내가 본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증인이 되는 것은 가르침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타남과

이상의 문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오히려 이 세대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일을 하려면 우리 자신이 이상을 갖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보아야 한다. 그 이상을 본 후에는 여러분은 사람들을 접촉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이 그분을 보았음을 말해야 한다. 낮고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가련한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눈먼 채 어둠 가운데 있다.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말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과 사탄에게서부터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돌아옴으로써 그들은 사탄의 권세인 어둠의 악한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해방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죄들이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고, 모든 성도들은 뭇을 갖고 있다(골 1:12). 골로새서에 의하면, 성도들의 뭇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할당되었고, 우리는 모두 그분에 대해 한 뭇을 갖고 있다. 우리의 뭇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의 뭇이다. 믿지 않는 이들은 이 긍정적인 뭇을 갖지 못한다. 그들의 뭇인 불뭇은 부정적인 것이다. 우리의 뭇이신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실 것이다.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뭇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집합적으로 뭇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생활을 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한 뭇을 가지리라는 뜻이다. 우리는 혼자 그러한 뭇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뭇을 가질 수 있다.

## 완전한 복음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완전한 복음이 제시되어 있다. 완전하고 온전하며 포괄적인 복음이 여기에서 발견된다. 즉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도들의 공동의 뭇을 누리도록 교회생활을 하게 한다. 이 한 절에 일곱 가지의 요점이 있다. (1)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 (2)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한다. (3)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4) 죄들이 용서받도록 그들을 돕는다. (5)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도록 그들을 돕는다. (6) 그리하여 그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공동의 뭇을 얻도록 한다. (7) 그들이 교회생활 안에 있게 한다. 여러분은 그러한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청년들이 이 세대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다. 천당에 간다고 하는 가련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제시된 뛰어난 복음을 전하라.

## 기도의 필요성

이 절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일곱 가지 면을 모두 지적하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 저에게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어둠에서 돌이키게 해 주소서. 저는 어둠에 남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이것이 영적 실재이다. 우

리가 이 실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이 실재를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은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를 사탄의 권세와 지배에서 당신 자신께로 돌아가게 주소서.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역이시고, 저의 범위이시며, 저의 왕국이십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하는데, 여러분은 달라질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들을 두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라. “주님, 제 눈이 이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불투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과 같은 눈을 갖고 싶습니다.” 그 생물들은 안팎의 어느 곳에도 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접촉할 때, 우리가 수정처럼 맑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투명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선하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경적이기까지 하겠지만, 그들은 불투명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즉시 우리가 수정처럼 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파가 아니다. 이것은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제 모든 죄를 완전하고 철저히 용서해 주소서.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것도 처리되지 않은 채로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또한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지 용서만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뭇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뭇으로 누린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그분을 누린다. 성도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하게 된 이들이다.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된다. 오, 우리는 이 일곱 가지에 대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말씀드리라. “주님, 저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신이 바울에게 계시하신 이 복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룰 뿐 아니라 사탄의 왕국도 다룬다. 그것은 우리의 뭇이신 풍성한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몸, 곧 그리스도의 교회인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체험해야 하는지!

온전한 복음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다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에게 이상을 줄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볼 것이다. 이 모든 장에서 우리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좌를 만져야 한다.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엮어지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완고한가? 그렇게 완고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엮어지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당신의 은혜의 보좌를 만집니다.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온갖 어둠에서 빛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해 주소서. 저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제 모든 죄악됨을 완전히 용서해 주소서. 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제 뭇이신 당신을 누리게 해 주소서.”

### 바울의 종교적인 배경과 주님의 나타나심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는 바울의 체험에서 어떤 종교적인 배경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되었는지를 본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유대교 안에서 앞서가고 있었으며,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성적이었다고 말한다. 이 절들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여러분은 내가 행한 바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종교에 대하여 지극히 열성적이어서 많은 동년배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관한 한 나는 최고였습니다. 나는 심지어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계시이고 이러한 이상이다.

나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바울의 때의 상황과 아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중 많은 사람에 대해 염려가 있다. 우리는 모두 기독교의 배경에 영향을 받아 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년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때 종교적인 방법으로 수행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의 전통적인 복음을 전할지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서 낡고 전통적인 기독교를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낡은 것들을 던져 버리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제게 나타나심으로 무언가를 보여 주소서. 주님, 당신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심으로 바울은 무언가를 보았고, 당신은 당신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당신의 나타나심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본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소서.” 다만 이 장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분께 간다면, 나는 그분께서 열려 있으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께는 하늘과 땅이 마찬가지로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다소의 사울이 그의 길을 갈 때, 하늘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으시다. 다만 그분께 가서 말씀드리라. “주님, 저는 전에 그러한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에서 당신 자신께 돌아가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분께서 즉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분의 나타나심 안에서 무언가를 볼 것이다. 이러한 나타나심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젊은이들을 접촉할 때, 여러분은 단지 전파자가 아니라 증인일 것이다.

여러분은 살아 계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전하도록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본 것의 결과이어야 한다. 우리는 교리를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을 전하고 증언한다.

###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에게 주신 은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한다. 아마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관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였다고 말한다. 만일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가 그러한 이상을 가질 수 있다면, 확실히 우리도 모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사도가 아니고 특히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그가 본 것만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바울은 그가 우리 모두보다 더 작다고 말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가장 많이 대적한 사람이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가장 거스르는 이였기 때문에 심지어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게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마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울처럼 많이 대적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장 많이 대적한 이 사람은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제가 옛날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바울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보다 더 크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상을 받고 계시를 얻을 자격이 더 많다.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없겠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실망하지 말라. 나는 원수의 간교함을 잘 알고 있다. 젊었을 때 나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절들이 놀라웠지만, 그것들은 사도 바울과 관계있는 것이지 나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나 자신을 변명했다. 나는 이 절들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놓쳤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깨어나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았고 그 말씀을 믿었다. 나는 뛰며 외쳤다. “할렐루야! 나는 바울보다 더 크다. 나보다 더 작은 이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그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왜 내가 받을 수 없겠는가? 나는 그보다 더 자격이 있다.” 그날 이후 그 이상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내 말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사도 직분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 말은 자격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바울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가 이해하든 못하든 에베소서 3장 8절은 바울이 저보다 더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다면 제게도 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근거하여 은혜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보고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서 무언가를 보아야만 한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달라질 것이고, 주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다. 많은 눈들이 뜨이고, 많은 청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들이 용서받음과 거룩하게 됨과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공동의 몫을 누릴 것이다. 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의 풍성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원수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를 본다. 이 장에서 언급된 모든 절들을 신중히 기도로 읽어 보라. “주님, 당신께 진정으로 구합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작은 이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누림에서 비롯되는 교회생활을 갖게 해 주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참되시고 살아 계시며 현존하시며 실지적이시며 유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그분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그분도 여러분을 진지하게 대하실 것이다. 나는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경향을 따르지 말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 잊어버리라. 우리에게 새롭고도 하늘에 속한 경향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절을 기도로 읽고 그것들 안에 살며 그것들에 따라 증언한다면,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일 것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실지적인 교회생활을 갖는다. 원수 사탄은 그 영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리스도의 실재이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실재가 되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 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더욱이 사탄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 그것에 반대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주적인 교회만을 관심한다.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만을 갖는 것은 허영의 시장(존 번연의 <천로 역정>에 나오는 지명으로, 사람들이 ‘허영’을 파는 장소를 의미함—역자 주)을 갖는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적인 교회를 관심하면서도 교파와 자유 단체들을 지속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없어진다. 그 대신 소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허영의 시장과 모든 교파와 단체들이 있을 뿐이다. 어디에 교회가 있는가? 교회는 특정 지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달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다.

여러분 청년들은 오늘날 불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촉구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언가가 오게 되고, 여러분은 완전한 복음의 이상을 보고 여러분이 주님께 대해 본 것을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께 의해 하늘에 속한 그러한 이상을 주입받고,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의 증거 안으로 이끄는 그분의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받을 때까지, 이 장의 내용에 대해 교통하고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년, 3권, 청년들을 위한 훈련, 1장)